

대학 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IPA분석: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남정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유현경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수료)**
김윤희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강은정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이현석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장경화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김수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지원제도의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창업지원제도의 질적인 성장과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창업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인지되고 있으나, 수요자(학생)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경영자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지원제도를 수립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대학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중요도, 창업지원제도 성취도, 중요도-성취도 분석

1. 서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산업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산업 간의 격차 및 코로나19로 실업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2021)의 청년(15세~29세)실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8.9%, 2020년 9%, 2021년 7.8%로 최근 3년 평균 실업률은 8.6%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자동화 기술로 인하여 노동 시장 및 일자리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변지유·이장희, 2020). 이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 창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을 국가적 야젠다로 설정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15개 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 예산을 지원하였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19조원이 편성되었을 정도로 정부가 창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부분으로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 제1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namjm@dankook.ac.kr

** 공동저자, 단국대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수료, happyhk1221@gmail.com

***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116minerva@gmail.com

****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rosmom@naver.com

*****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hyunstone94@gmail.com

***** 공동저자, 단국대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98281223@hanmail.net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tnwls142@dankook.ac.kr

· 투고일: 2022-03-10 · 1차 수정일: 2022-04-08 · 2차 수정일: 2022-04-20 · 게재확정일: 2022-04-27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형성은 스탠포드대학, 버클리대학 등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도 산학협력 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하여 혁신기업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지식과 태도, 역량 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재호, 2018).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교과 및 비교과 개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장학금, 창업(현장)실습 등) 도입,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설립 등을 통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학생들이 창업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교육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제고 등의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업 정보 전달 위주의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이론 또는 교양 수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남정민, 2017). 최근 3년간 대학 창업 강좌의 경우 이론형 과목이 실습형 과목에 비해 개설이 많이 되었으며, 창업교육은 대학생이나 일반인 등과 같이 교육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창업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송명영·김예슬, 2020). 또한 국내 대학 창업교육은 17년 11,828개에서 18년 13,905개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실습형 강좌 수는 전체의 30%만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학생창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2018년도에 38.6% 증가하였다(이성호 외, 2020). 대학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단발적인 성격과 참여자들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백서인, 2017). 이처럼 대학의 창업교육 및 지원체도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체도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수요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하위 요소들에 대해 중요도와 성취도, 개선사항을 IPA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대학의 창업지원 환경과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창업교육 및 지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요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는 것은 창업분야에 있어서 대학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통한 경험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강화하게 된다. (예비)창업가도 다양한 창업교육이나 창업 경험으로 창업에 대한 자신감, 창업 관련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하게 된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1997)은 인간 행동의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의 역할과 행동의 관찰과 모방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인지이론은 기업가정신 및 연구에 대한 지식구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는 개인이 직면한 환경에서 개인의 효능감을 강화하는 정신모델을 의미한다(김주섭·박재춘, 2013).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과거의 성공경험이나 실패경험이 사람들의 인지적 역량이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97). 즉, 사람들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노력, 인지적 자원 및 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동기부여과정(Gist & Mitchell, 1992, Kanfer, 1987)으로 자기규제적 행위(예: 자기효능감, 자기유능감 등)를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규제적 과정은 바람직한 목표와 자신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효능감 등의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평가인 자기반응(self-reactions)이 포함된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자기규제적 과정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또는 정서적 상태 등을 강조한다(Bandura, 1997).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실패나 부정적인 과거 경험 및 자기역량에 대한 의심은 개인의 신념 및 정서적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Bandura & Jourden, 1991; Wood & Bandura, 1989).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방된 성취를 통한 대리적 경험 또는 모델링(modeling)으로도 강화된다.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취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긍정적인 피드백이 실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의 자기변화를 지원하게 된다.

실제 창업가들의 창업 성공은 창업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취경험,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및 정서적 상태를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창업가들의 학습, 업무 및 창업경험, 인지적 능력, 문화 등은 창업가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Newman et al., 2019).

결론적으로 미래의 예비창업가들이 속한 대학 내에 창업환경은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및 정서적 상태, 성취경험 등을 통해 그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 내에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창업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2.1. 대학 창업교육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실업,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창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한 법인기업은 약 12만 3천 개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률은 30% 이하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12% 낮은 수치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창업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창업교육은 창업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가를 육성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윤영집·이종원, 2022). 창업교육은 창업아이템을 탐색하고 사업계획 수립,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식, 태도, 능력 등을 교육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다(김용태, 2020). 정유선·정화영(2018)은 예비창업자의 사업 준비 혹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서 사업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을 창업교육이라 정의하였고, 김문희(2016)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창업교육은 혁신성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높이고, 기업 및 창업 활동에 필요한 핵심인재로써 역량을 함양하는데 활용된다고 하였다. 즉,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창업자 스스로에게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 볼 수 있다(박재춘 외, 2021).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취업난 등의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의 창업활동 및 창업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 창업교육은 2013년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대학이 지역 내 창업 전진기지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2018년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대학들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창업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김재현 외, 2020). 특히 대학은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가를 육성해야 하며 창업 경험이 거의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가로서 필요한 창업의 기초지식을 학습시키고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가 역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에서 예비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과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기술창업론, 창업 마케팅 등 여러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비교과프로그램은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 국내 대학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의 현황 분석과 그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창업교육이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대학생들의 창업성과는 높지 않고, 창업 내 유관기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협력 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윤석철, 2021). 따라서 대학 창업교육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적 기술 외에도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구축하고, 창의적 사고와 협업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업 교육과정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대학 창업지원

대학의 창업지원은 창업교육(교과 및 비교과)과 대학 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향이다(김성욱, 2017). 하지만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창업유관기관 또는 부서별로 창업지원 중복에 따른 효과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학은 교수, 대학(원)생 등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시설, 장비, 지식재산지원 등이 모여있는 곳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은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Henderson & Robertson, 2000, 김준호·유연호, 2019), 대학은 인력과 자본, 기술 등이 부족한 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회계, 세무, 법률, 특허, 자금, 인프라, 시설, 네트워킹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대학 내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창업중점교수를 배치하고, 경진대회, 동아리, 창업캠프, 창업특강, 창업교육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학자들은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요소는 창업자의 잠재적인 능력과 특징, 창업 아이디어 도출, 창업공간, 전문가 네트워크,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보았다. 강영욱(2013)은 통합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훈련,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최동락(2012)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자금지원, 경영교육지원, 컨설팅지원으로 분류하였고, 권명규·양해술(2016)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정부는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

도록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부와 대학(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대학(원)생 등 창업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여 정립한 대학 창업지원 모델이다. 이는 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창업 인프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규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창업강좌,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등으로 구분된다. 창업사업화는 우수한 창업자원을 발굴하여 교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사업화의 기본 유형으로는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스카우팅, 액셀러레이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인프라는 효율적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직, 인력구축, 공간 및 장비, 학사제도 등과 같은 활동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교육센터와 같은 조직/인력, 공간, 장비, 창업휴학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 학점교류제, 창업연계전공, 창업장학금과 같은 창업친화적 제도, 창업포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을 대학 내 (예비)창업자들이 경영, 투자, 자금, 특허, 공간 등을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아 창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대학 창업지원 모델

세부교과목		세부내용
정규교과 및 비교과		창업강좌(기업가마인드 함양, 사업아이템 창출, 기업가정신, 자금조달 등의 수업내용 포함)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특강, 창업서포터즈, 창업마일리지, 네트워킹, 창업포럼/세미나, 투자유치
창업사업화		스카우팅, 액셀러레이팅, 투자, 전문보육, 마케팅 BM고도화, 우수인력추천, 경영자문, 공간 및 시설제공, 경영전문멘토링, 네트워킹
창업 인프라	조직/인력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본부
	공간/장비	창업동아리방, 창업준비실, 공동창업보육실, 기업부설연구소, 메이커스페이스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학점교류제, 창업연계전공, 창업장학금
	창업포털	창업활동(정규/비교과)창업 현황 등 이력 관리 포털

출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대학 창업운영 매뉴얼 3.0+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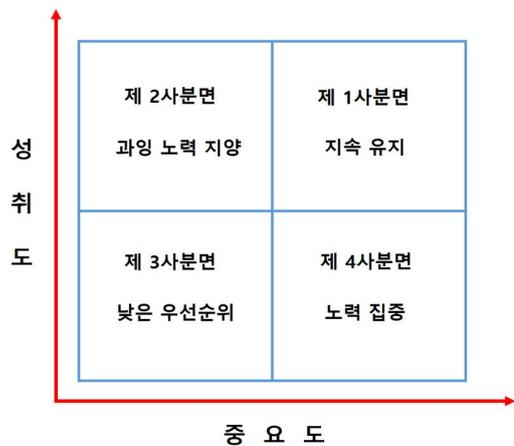
III. 연구방법

3.1. IPA 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지각하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및 분석하는 평가기법이다. 1970년대 경영학에서 최초로 소개되어 마케팅, 심리학, 건강, 경제, 관광, 서비스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활

용되고 있다(Oh, 2001). IPA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특정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2차원 상의 평면 위에 좌표로 요소를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다(김문수, 2003). IP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공기열, 2006). IPA는 조직이 전략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측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이혜린·김정만, 2003). IPA는 고도의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평가 속성의 평균값만 산출하면 4분면 Matrix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며 중앙값과 평균값이 비슷하면 평균값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Martilla & James, 1977).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 교육 및 지원제도 관련 조사 대상자들이 각 요인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값과 성취되었다는 값을 평균으로 산출하여 x축(중요도), y축(성취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IPA 매트릭스에 각 속성을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제 1사분면 ‘지속 유지’영역은 평가자가 이 영역에 속해 있는 요인 또는 특성들은 만족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과잉 노력 지양’인 제 2사분면 영역은 평가자들이 해당 영역의 특성에 대하여 성취도는 높지만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여기므로 이 요인에 대한 노력을 다른 영역에 분산하여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제 3사분면은 이 영역의 특성들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매우 낮으므로 현재 이상의 노력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사분면 ‘노력 집중’영역은 평가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낮은 요인을 뜻한다. 따라서 이 영역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1> IPA 중요도-성취도 분석 매트릭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D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D대학은 과거 창업선도대학 운영대학으로 현재 초기창업패키지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창업친화적학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창업의 병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과거 창업교육거점대학(교육부 지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학부단위의 창업교육은 교양교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의 창업학과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창업 분야 교수인력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중심의 창업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25일간 D대학 학부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0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표본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 188명(30.9%), 여성 420명(69.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24세 539명(88.7%), 25세~30세 63명(10.4%), 기타 6명(1.0%)이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성	188	30.9
	여성	420	69.1
나이	19세~24세	539	88.7
	25세~30세	63	10.4
	기타	6	1.0
학년	1학년	108	17.8
	2학년	153	25.2
	3학년	186	30.6
	4학년	161	26.5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221	36.3
	상경계열	105	17.3
	공학계열	136	22.4
	자연계열	70	11.5
	예체능계열	41	6.7
	의학계열	35	5.8
창업 경험	없다	560	92.1
	있다	48	7.9
진로 계획	창업	26	4.3
	취업	468	77.0
	진학	85	14.0
	프리랜서	13	2.1
	기타	16	2.6
	창업 교육 참여 경험	참여	140
	비참여	468	77.0

3.3.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 내 창업교육 참여경험을 조사하는 문항은 (한국고용정보원, 2013)의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분석 연구보고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참고하였고,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문항은 (황진선, 2007)의 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참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초정보, 창업교육 참여경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중요도,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성취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항목은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기반으로 창업휴학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학점교류제, 창업연계진공, 창업장학금 요소를 활용하였다. 또한 대학 창업지원의 하위항목으로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과 더불어 D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스카우팅,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 특허 지원, 창업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SPSS 23.0을 이용하여 표본 전체, 창업경험자, 창업무경험자의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표 3> 측정 도구

구분	내용	문항 수	출처
기초정보	창업교육 참여경험	1	한국고용정보원 (2013)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중요도	창업교육 중요도	7	황진선(2007)
	창업지원제도 중요도	10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성취도	창업교육 성취도	7	황진선(2007)
	창업지원제도 성취도	10	

IV. 연구결과

4.1.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IPA 검증 결과

먼저,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중요도 및 성취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중요도는 ‘자금 및 투자지원(4.19)’,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4.08)’, ‘창업전문가 멘토링(4.04)’, ‘창업자 네트워킹 및 경영자문(4.00)’,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3.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평균은 3.87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D대학 학생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취도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전문가 멘토링(3.50)’,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3.35)’, ‘창업자 네트워킹(3.33)’, ‘스카우팅(3.2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검증을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모든 요인에서 현재 실행하는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성취도가 중요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순서

는 ‘자금 및 투자지원($t=23.389, p<.001$)’,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지원($t=20.073, p<.001$)’, ‘경영자문 지원($t=19.999, p<.001$)’,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t=20.297, p<.001$)’, ‘창업현장실습($t=18.110, p<.001$)’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4>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에 대한 IPA 검증: 전체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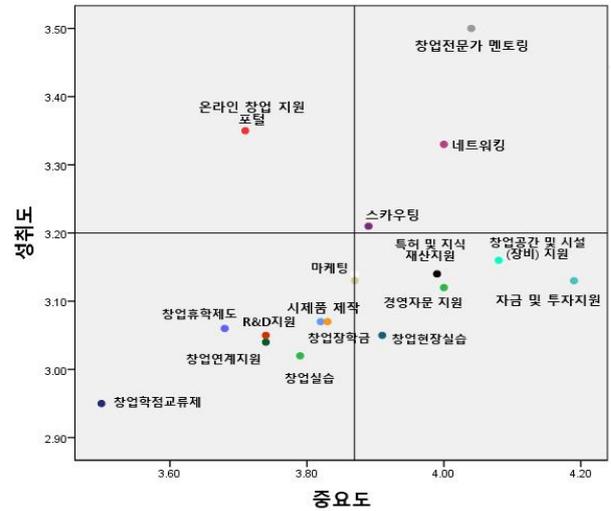
구분	중요도	성취도	중요도-성취도 차이	t	순위
스카우팅	3.89(8)	3.21(4)	.673	18.063***	12
네트워킹	4.00(4)	3.33(3)	.669	17.055***	13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99(6)	3.14(6)	.855	20.297***	4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4.04(3)	3.50(1)	.541	13.954***	16
시제품 제작 지원	3.82(11)	3.07(10)	.747	17.434***	8
자금 및 투자지원	4.19(1)	3.13(7)	1.063	23.389***	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4.08(2)	3.16(5)	.916	20.073***	2
경영자문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4.00(4)	3.12(9)	.887	19.999***	3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87(9)	3.13(7)	.740	17.007***	9
R&D 지원	3.74(13)	3.05(13)	.684	16.438***	11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	3.71(15)	3.35(2)	.352	7.753***	17
창업 휴학제	3.68(16)	3.06(12)	.625	12.869***	14
창업 실습	3.79(12)	3.02(16)	.765	16.114***	6
창업 현장 실습	3.91(7)	3.05(13)	.854	18.110***	5
창업 학점 교류제	3.50(17)	2.95(17)	.553	11.867***	15
창업 연계 전공	3.74(13)	3.04(15)	.696	14.974***	10
창업 장학금	3.83(10)	3.07(10)	.757	15.355***	7

* 참조 : 순위는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가 큰 순서로 제시함

4.2.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IPA 매트릭스 도출을 위하여 요인(특성)의 성취도, 중요도 평균값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림 2>는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지원’, ‘경영자문 지원’, ‘특허 및 지식재산지원’, ‘창업현장실습’에 대해 중점 개선(제 4사분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사분면에 위치한 ‘창업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스카우팅’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특성들이므로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 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창업지원 포털’ 요소는 중요도는 낮지만 성취도가 높은 속성으로 창업교육 및 지원 운영자들은 이 항목들에 대해 대학의 자원이나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중

요하게 고려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은 요소(제 3사분면)는 ‘시제품제작’,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지원’,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습’, ‘창업연계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n=608)

4.3.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IPA 검증 결과 (창업경험자vs창업무경험자)

창업교육 및 지원의 실질 수요자를 대상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IPA분석을 진행하고자 ‘창업경험자’ [그룹 A] 및 ‘창업무경험자’ [그룹 B]로 나누어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룹 A]과 [그룹 B] 모두 자금 및 투자지원(4.17, 4.2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창업 공간 및 지원, 창업 전문가 멘토링 등이 두 그룹 모두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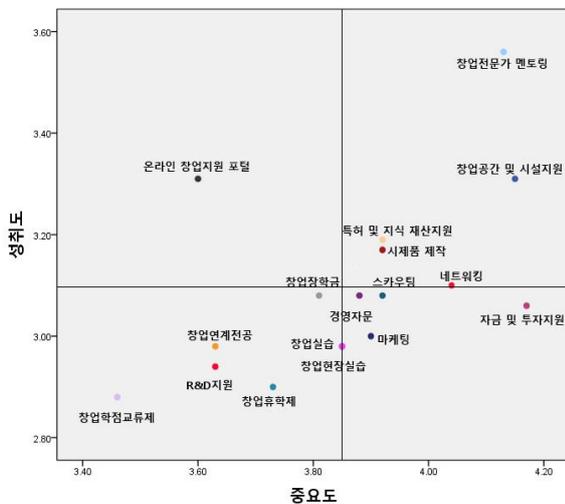
<표 5>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IPA 검증: 창업경험자vs창업무경험자

구분	창업경험자 [그룹 A] N=48			창업무경험자 [그룹 B] = 560		
	중요도 평균 (순위) [a]	성취도 평균 (순위) [b]	차이 [a-b]	중요도 평균 (순위) [c]	성취도 평균 (순위) [d]	차이 [c-d]
스카우팅	3.92 (5)	3.08 (7)	0.83 (6)	3.88 (8)	3.23 (4)	0.66 (12)
네트워킹	4.04 (4)	3.10 (6)	0.94 (2)	4.00 (5)	3.35 (3)	0.65 (13)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92 (5)	3.19 (4)	0.73 (11)	4.00 (5)	3.13 (8)	0.87 (4)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4.13 (3)	3.56 (1)	0.56 (16)	4.04 (3)	3.50 (1)	0.54 (16)
시제품 제작 지원	3.92 (5)	3.17 (5)	0.75 (10)	3.81 (11)	3.06 (12)	0.75 (8)

자금 및 투자지원	4.17 (1)	3.06 (10)	1.10 (1)	4.20 (1)	3.14 (6)	1.06 (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4.15 (2)	3.31 (2)	0.83 (6)	4.07 (2)	3.15 (5)	0.92 (2)
경영자문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3.88 (9)	3.08 (7)	0.79 (9)	4.01 (4)	3.12 (9)	0.89 (3)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90 (8)	3.00 (11)	0.90 (3)	3.87 (9)	3.14 (6)	0.73 (9)
R&D 지원	3.63 (14)	2.94 (15)	0.69 (13)	3.75 (13)	3.06 (12)	0.69 (11)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	3.60 (16)	3.31 (2)	0.29 (17)	3.71 (15)	3.36 (2)	0.35 (17)
창업 휴학제	3.73 (13)	2.90 (16)	0.83 (6)	3.68 (16)	3.07 (10)	0.61 (14)
창업 실습	3.85 (10)	2.98 (12)	0.87 (4)	3.78 (12)	3.03 (16)	0.75 (7)
창업 현장 실습	3.85 (10)	2.98 (12)	0.87 (4)	3.91 (7)	3.06 (12)	0.85 (5)
창업 학점 교류제	3.46 (17)	2.88 (17)	0.58 (15)	3.51 (17)	2.96 (17)	0.55 (15)
창업 연계 전공	3.63 (14)	2.98 (12)	0.65 (14)	3.75 (13)	3.05 (15)	0.70 (10)
창업 장학금	3.81 (12)	3.08 (7)	0.73 (11)	3.83 (10)	3.07 (10)	0.7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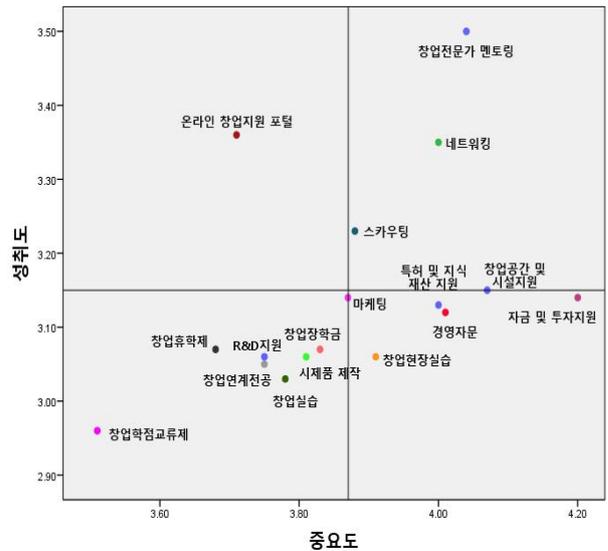
4.4.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창업경력자vs창업무경력자)

<그림 3>은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A] 즉, 창업경력자를 중심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자 및 전문가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 지원’,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에 대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사분면에 위치한 ‘창업전문가 멘토링’, ‘창업 시설 및 공간지원’,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특성들이므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업경력자, n=48)
<그림 3>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그림 4>는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B] 창업무경력자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결과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 ‘경영자문 지원’,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에 대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사분면에 위치한 ‘창업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스카우팅’의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특성들이므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



(창업무경력자, n=560)
<그림 4>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V.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D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제도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여 대학 창업지원제도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느끼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이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창업지원제도 요소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D대학 학생들의 창업지원제도의 중요도 순위는 ①자금 및 투자지원(4.19) ②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4.08) ③전문가 멘토링(4.04) ④네트워킹 및 경영자문 지원(4.00) ⑤특허 및 지식재산출원(3.99) ⑥창업현장실습(3.91) ⑦스카우팅(3.89), ⑧마케팅 지원(3.87) 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도 순위를 살펴보면 ①전문가 멘토링(3.50) ②온라인 창업지원 포털(3.35) ③네트워킹(3.33) ④스카우팅(3.21) ⑤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3.16) ⑥특허 및 지식 재산출원(3.14) ⑦자금 및 투자 지원/마케팅 지원(3.13) ⑧경영자문

지원(3.12) 순으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전체는 ①전문가 멘토링 ②네트워킹 ③스카우팅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①자금 및 투자 지원 ②공간 및 시설지원 ③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④경영자문지원 ⑤창업현장실습 요소는 높은 중요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IPA 분석 결과를 ‘창업경험자’ [그룹 A], ‘창업무경험자’ [그룹 B]로 나누어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그룹 A]와 [그룹 B]는 동일하게 ①자금 및 투자지원 ②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③전문가 멘토링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다. 성취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룹 A]는 ①전문가 멘토링 ②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③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 [그룹 B]는 ①전문가 멘토링 ②온라인 창업지원 포털 ③네트워킹 지원 순으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및 집단별(창업경험자 및 창업무경험자) 창업지원제도 총 17가지 요소의 중요도-성취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취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D 대학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학생’ 즉, 수요자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PA 및 매트릭스 분석 결과에 따라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요소는 자금 및 투자지원이다. 또한 자금 및 투자지원은 ‘창업경험자’ [그룹 A]와 ‘창업무경험자’ [그룹 B]에게도 공통적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요소이다.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겪는 난관은 자금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우수한 기술과 팀워크, 열정 등을 앞세우더라도 경영과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기업이 성공에 도달하기 전에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 중심의 재정지원사업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이를 충족하기 힘든 학생 창업자들에게 자금 지원 혜택은 자연스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인데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접근 방식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업화자금 지원 시 학생창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여 자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사업비(교비) 확보 및 액셀러레이터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 내 주요 대학의 경우 동문 네트워크와 전문가 모임을 활용하여 창업멘토링을 제공하고 대학의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학생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 해외대학처럼 대학이 주도적으로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금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회계·재무·특허 등 경영자문 지원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요소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는 세무, 회계, 특허, 노무 등이 있다. 학생 스스로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내에 일정 시간 또는 요일별/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고 신청 및 멘토 매칭 단계를 거쳐 학생 창업자가 필요할 때 자문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내 창업지원제도의 요소별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성취도 간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창업은 개인 및 주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양한 요소들을 창업단계별·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학생창업자들의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이다. 창업실습은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예비 학생 창업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며, 창업현장실습은 학생창업자의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과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창업경험자’ [그룹 A]는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에 대한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창업무경험자’ [그룹 B]는 창업실습은 중요도와 성취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현장실습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창업무경험자들에게 창업실습 교과목은 창업 준비 활동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창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와 성취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은 대학 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거나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은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구성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등)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동반하여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룹 B]는 공간 및 시설 지원 및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요소가 제 4사분면(노력집중)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그룹 A]는 제 1사분면(계속유지)에 위치에 있다. 대학 창업에서의 [그룹 A]에 대한 지원은 창업동아리 지원인 경우가 많으며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은 창업 동아리실 등의 공간 및 시설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며 대부분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특허 또는 출원하는 과정이 잘 연계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룹 B], 즉 창업무경험자의 공간 및 시설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창업자의 입주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학 창업지원의 핵심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창업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례 공유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허 등의 무형자산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성공률은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 기반 학생스타트업의 지원 정책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문가의 네트워킹’ 요소는 [그룹 A]에 있어서는 노력이 집중 요구되어지며, [그룹 B]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은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들이 필요한 분야의 협력자를 만나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창업경험자는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성취도는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에 필요한 투자, 마케팅, 성공 창업가 등의 분야를 선정하고 고충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D대학의 경우, 대학 내 창업을 지원하는 4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복사업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창업시스템이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D대학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지원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통합조직기구’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창업지원제도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여러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을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교육의 위상 및 효과적 운영이 필요한 바, 대학 내 창업학과 설립 및 전공(부전공) 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타 대학의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지닌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를 D대학 학생들로 제한하였고, ‘창업경험자’의 표본 수가 적어 설문 대상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 및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지역·창업유무·학교 특성에 따라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나 문항 구성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창업지원제도 현황, 창업 관련 대학의 지표 등을 확인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

- 강영욱(2013).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의지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공기열(2006). IPA 기법을 이용한 여가활동 평가. *관광연구*, 20(3), 285-303.
- 권명규·양해술(2016).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정책 및 기업이 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사업실패 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21-37.
- 김문수(2003). 호텔정보시스템의 중요도-성과 분석. *관광연구*, 18(2), 289-300.
- 김문희(2016).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THE HRD REVIEW*, 19(3), 104-122.
- 김성욱(2017). 창업지원제도가 대학생의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김용태(2020). 참여동기와 창업멘토링이 창업교육만족도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생 창업유망팀 300(U-300)’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267-277.
- 김주섭·박재춘(2013). 조직문화와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수준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3), 51-74.
- 김재현·이성호·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사례분석: 10개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10(6), 96-108.
- 김재호(2018). 전문대학의 창업지원 모델에 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4(3), 165-170.
- 김춘호·유연호(2019).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2(3), 65-81.
- 남정민(2017).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 플립러닝 및 PBL 기반 기업가정신교육 적용 사례. *벤처창업연구*, 12(2), 31-40.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재춘·김달원·황지영·남정민(2021). *창업행동세미나*. 서울: 한경사.
- 백서인(2017).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정책 비교: 청화대

- 학교, 도쿄공업대학, 싱가포르립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 39(3), 93-116.
- 변지유·이상희(2020).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연구: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EntreComp(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도출. *벤처창업연구*, 15(6), 189-207.
- 송영명·김예슬(2020). 한국과 미국의 대학 내 창업교육 분석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2(4), 998-1006.
- 윤석철(2021). 국내 대학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의 현황분석 및 그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35(6), 141-173.
- 윤영집·이중원(2022). 대학생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 혁신행동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41(1), 23-42.
- 이상호·김정음·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대학창업발전방안 연구: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51-160.
- 이혜련·김정만(2003). 컨벤션참가자의 개최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중요도와 성취도. *관광연구*, 18(1), 79-94.
- 정유선·정화영(2018). 대학생들의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및 창업의지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벤처창업연구*, 13(6), 75-87.
- 중소벤처기업부(2021a).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Retrieved (2021.12.08.)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8289>.
- 중소벤처기업부(2021b). *창업생태계의 변화분석*. Retrieved (2021.12.10.)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6105>.
- 통계청(2021). *청년실업률*. Retrieved (2021.12.08.)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 최동락(2012).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한국고용정보원(2013).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Retrieved(2021.12.10) from <https://keis.or.kr/user/extra/main/3873/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pubIdx=1617&spage=1>.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Retrieved(2022.03.03) from http://www.koef.or.kr/board/data_view.php?ARTICLE_SEQ=4411&page=1&SEARCH_COND=1&SEARCH_WORD=%EB%8C%80%ED%95%99%20%EC%B0%BD%EC%97%85&CATEGORY_SEQ=
- 황진선(2007). *대학생의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지*.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Baek, S. I.(2017). Comparative Research on University Start-up Policy: Tsinghua University,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an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as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9(3), 93-116.
- Bandura, A.(1997). The anatomy of stage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2(1), 8-10.
- Bandura, A., & Jourden, F. J.(1991).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941.
- Bian, J. Y., & Lee, J. H.(2020). Entrepreneurship Competency-Based Education Research: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for Advancement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15(6), 189-207.
- Choi, D. R.(2012). *(A) study of the effects of a support program for small enterprise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 on area Busa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Gist, M. E., & Mitchell, T. R.(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Henderson, R., & Robertson, M.(2000). Who wants to be an entrepreneur? Young adult attitudes to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5(6), 279-287.
- Hwang, J. S.(2007). *Demand Level for Business Start up Education and Willingness of Starting a Busin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Hoseo National University.
- Jung, Y. S., & Jung, H. Y.(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artup Education, Startup-Relevant Knowledge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75-87.
- Kanfer, R.(1987). Task-specific motiv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to issues of measurement, mechanisms, processes, and determina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5(2), 237-264.
- Kang, Y. W.(2013). *A Stud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s of Potential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Hoseo National University.
- Kim, C. H., & Yoo, Y. H.(2019).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22(3), 65-81.
- Kim, J. H.(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support model of college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3), 165-170.
- Kim, J. H., Lee, S. H., & Nam, J. M.(2020). A Case Study on the Advancement of Uni. Start-up Edu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6), 96-108.
- Kim, J. S., & Park, J. C.(2013). The Multi-level Analysis on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3), 51-74.
- Kim, M. H.(2016). Trends and cases of OECD discussion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HRD REVIEW*, 19(3), 104-122.
- Kim, M. S.(2003).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Hotel Information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18(2), 289-300
- Kim, S. W.(2017). *The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affecting the Technology-Based Start-up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Kim, Y. T.(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267-277.
- Kong, K. Y.(2006). Evaluation of Leisure Activity using the IPA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0(3), 285-303.
-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2019). *University Start-up Operations Manual 3.0+*. Retrieved(2022.03.03) from http://www.koef.or.kr/board/data_view.php?ARTICLE_SEQ=4411&page=1&SEARCH_COND=1&SEARCH_WORD=%EB%8C%80%ED%95%99%20%EC%B0%BD%EC%97%85&CATEGORY_SEQ=
-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2013).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Status*. Retrieved (2021.12.10) from <https://keis.or.kr/user/extra/main/3873/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pubIdx=1617&spage=1>.
- Kuan, M. K., & Yang, H. S.(2016).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fusion of industries: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21-37.
- Lee, H. R., & Kim, J. M.(2003). Convention Attendees' Perceptions of Destination Service in term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8(1), 79-94.
- Lee, S. H., Kim, J. E., & Nam, J. M.(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art-up through the Analysi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of D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51-160.
- Martilla, J. A., &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a). *SME Startup Support Plan*. Retrieved(2021.12.08.)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8289>.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b). *Analysis of Changes in Entrepreneurship Ecosystems*. Retrieved(2021.12.10.)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6105>.
- Nam, J. M.(2017). A Study between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PBL(Problem-Based Learning) and Flipped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31-40.
- Newman, A., Obschonka, M., Schwarz, S., Cohen, M., & Nielsen, I.(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B), 403-419.
- Oh, H.(2001).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2(6), 617-627.
- Park, J. C., Kim, D. W., Hwang, J. Y., & Nam, J. M.(2021). *Entrepreneurial behavior seminar*. Seoul: Hankyung publication company.
- Park, N. K., Kim, M. S., & Ko, J. W.(2015).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89-98.
- Song, Y. M., & Kim, Y. S.(2020).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n and American Universiti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2(4), 998-1006.
- Statistics Korea(2021). *Youth employment rate trend*. Retrieved (2021.12.08.)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 Wood, R., & Bandura, A.(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61-384.
- Yoon, S. C.(2021). A Study on the Status Analysis of Domestic University Entrepreneurship & Start-up Education and the Performance Factor.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5(6), 141-173.
- Yoon, Y. J., & Lee, J. W.(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Self-Leadership, Innovative Behavior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41(1), 23-42.

An Analysis of IPA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 University

Jung-Min Nam*
Hyun-Kyung, You**
Yun-Hee, Kim***
Eun-Jeong, Kang****
Hyun-Seok, Lee*****
Kyoung-Hwa, Jang*****
Su-Ji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D university students to grasp the pe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provided the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who are real users. Through this, a plan for qualitative growth and advancement of the university start-up system was derived using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all element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is higher than the performance, which means that the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currently implemented by universitie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but do not play a big role in terms of performance for students. In addition, the highest priority factors for improvement in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were funding and investment support, start-up space and facilities support, management advisory, pat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field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as objective data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universities should focus on and establish a start-up suppor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build and operate a start-up support system that reflects the needs of students.

KeyWords: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Importance of Start-up Support System, Performance of Start-up Support System,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nanjm@dankook.ac.kr

** Co-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happyhk1221@gmail.com

*** Co-Author,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116minerva@gmail.com

**** Co-Author,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rosmom@naver.com

***** Co-Author,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hyunstone94@gmail.com

***** Co-Author,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98281223@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tnwls142@dankook.ac.kr